

C-7. 상악 전치부 임플란트의 esthetic failure에 대한 원인 고찰

김성윤, 신계철, 신형식, 피성희, 유형근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연구 배경

상실된 자연치아의 수복을 위한 임플란트의 사용은 많은 임상과 연구에서 높은 성공률을 보이며 하나의 치료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임플란트 치료의 성공은 osseointegration과 기능의 회복 뿐 아니라 환자의 주관적인 만족감이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특히 상하악 전치부에 임플란트를 이용한 치료는 보철물이 주변 치아와 잘 조화되고 구별되지 않을 정도의 심미성이 치료의 필수적인 목적이다. 하지만 치아 상실은 대부분이 상당한 골 조직 및 연조직 결손을 동반하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bone augmentation, connective tissue graft, 상실된 치간 유두의 재생등과 같은 술식들이 연구되어지고 행해지고 있지만, 임플란트를 이용한 심미적 수복은 대단히 어려운 경우가 많다.

연구 방법 및 재료

본 증례들은 치주과에 내원하여 임플란트 수술을 시행한 환자중에서 심미성이 요구되는 부위에서 임플란트 식립 후 기능상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심미적인 실패를 보인 환자들의 증례를 살펴보고, 실패의 원인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 및 토의

전치부 임플란트를 심미적으로 수복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조직 재생 및 증대술, 적절한 임플란트 식립 각도와 위치, 적절한 고정체의 선택, provisional restoration, 치은의 형태 및 적절한 술전 진단과 환자의 심미적 요구를 파악하여 치료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